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187호 - 창립 2020.6.28



길목교회
THEWAY NEWS

주후 2024.2.11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테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교육전도사 : 전정민
사역자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에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건명 집사

입례송 <주님을 찬양하라> 다같이

♩ = 63 *p* Eb Ab Eb Bb Cm G Cm Bb Eb Ab Bb Eb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Ab Eb Bb Cm Ab Bb4 -3 Eb

님 을 찬 양 하 라 온 세 상 이 - 여 주

성시 교독 <시편 27편> 다같이

- (인도자)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도들)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인도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성도들)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인도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성도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인도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살면서
 (성도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인도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성도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인도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다같이)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회 기도 <나, 이웃, 교회, 나라, 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받았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영상으로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 <히브리서 10:10-18> 다같이

말씀 나눔 다같이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F C Dm Gm C³ F

사랑의나눔 있는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감사하여라>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성경말씀 개역개정

[히10:10-18] 10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16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 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나눔

(오늘 나눔은 라이프빌더스 성경공부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오늘 모임의 인도는 그 테이블에서 생일 날짜가 가장 빠른 사람이 해주십시오)

◎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죄로 인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본적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죄를 짓게 될 내가 구원받았는지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어보십시오.

◎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아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십시오.

[롬3:10-12]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 아래 도표를 보고 예수님의 죄 용서는 언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내가 미래에 짓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생각한 후 나누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주후30년) --- 나의 출생일(주후____) ---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 (주후____)

◎ 예수님의 죄 용서 사건은 십자가 사건 한번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입증하는 구절을 찾아 읽고 나누어주십시오. (10,12,14,17,18)

◎ 우리의 죄 사함의 근거는 나의 행위입니까? 주님의 결정과 사랑의 행위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고 나의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아무 영향도 미칠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탕자의 비유(눅15:11-32) 사건을 생각하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나누어보십시오.

◎ 죄 용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관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말씀을 보고 나누어주십시오.

[엡5:8-11]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갈5:16-18]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감사찬양

감사하여라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3:0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00~3:0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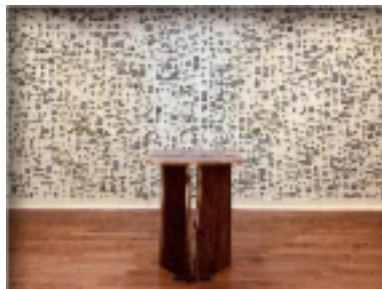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현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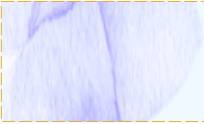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메모



공동체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여나눔예배

오늘은 2월 참여나눔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길목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눔시간에는 자신의 지난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 개개인이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나눔이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모임과 점심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설명절 연휴기간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친후 식사와 모든 모임이 없습니다.

* 명절에 만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알고 계시죠? 한순간의 안타까움으로 마음을 닫게 하는 것보다, 더욱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담임목사 해외 성지순례 사역

담임목사님은 이번주 15일까지 화목한순복음교회 팀을 이끌고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인들의 안전과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올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중보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